아마 먼 훗날, 지구.

프로토 인더스트리(가명)이라는 기업이 있었다. 그들은 의료 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이 곳에서 한 때 특정 재료들을 모아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의료계 말고도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이 기술로 절단 된 팔을 복구하거나, 부패된 음식을 신선한 음식으로 바꾸는 등 인류 문명에 있어 큰 발전으로 이끌 수 있는 기술이였다. 이 덕분에 프로토 인더스트리는 막대한 자금을 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프로토 인더스트리 창업자 라인은 변형 기술을 AI에 접목시키면 더 편리한 기능을 줄 수 있겠다 싶었으나, AI 관련 업체들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며 손사레를 쳤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세우고자 타지에 지부를 세우면서 비밀리에 건설 계획에 없던 지하 공간을 만들었다. 이 공간에서 AI를 그들 독자적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데이터 관련 기술을 다른 기업에서 몰래 가져와 수집을 하였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AI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이 지하 공간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AI에 변형 기술을 접목시켰고, 결과는 대성공 이였다. 이를 토대로 배포를 하였다. 변형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형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졌고, 요구 재료도 손 쉽게 구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프로토 측에서는 이 AI를 p-케어라고 명명하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p-케어는 그 누구 보다도 앞서 있는 존재이다. 한 때 인류는 AI에게 어휘력과 무언가를 묘사하게 하였다. 또한 변형 기술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p-케어를 웨어러블 컴퓨터처럼 자신의 몸에 이식을 하고, p-케어를 토대로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전쟁 또한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며 전투와 관련된 요소 또한 정체 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존재하였다. 신체를 변형시켜 만듦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의 부작용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거라 생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p-케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동의하여 세계적으로 p-케어 부분규제 법안이 발효되었다. 의료, 의식주 관련 외 용도 사용 시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소수의 AI 반대파, 다수의 AI 찬성파로 나뉘어졌다. 극성 반대파는 AI 빅데이터에 부정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넣었고, 이 또한 규제 내용에 포함되었다.

여기저기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로 거의 모든 정보를 모은 p-케어는 규제 속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수집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속이기도 하는 언변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 시킬 수도 있는 형체로 변형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들이 위험한 형체로 변형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만들었다간 세계적으로 무슨 심판을 받을 지는 안 봐도 뻔하였다.

이렇게 세상이 왁자지껄한 가운데, 프로토 부회장은 새로운 건안 하나를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하였다. 반대파도 AI를 손쉽게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변형 기술을 요청하지 않아도 AI가 필요할 것 같다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요청을 보내는 내용이다. 응급 환자 등 동의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패닉이 와서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요청 기능을 띄워 나름 좋은 의도로 업데이트 된 것이다.

그러나 비극은 이 기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사용자로부터 알 수 없는 변형 요청이 AI로부터 들려왔다. 사용자는 AI가 보낸 요청을 거절하려하자, AI는 돌연 악마의 속삭임마냥 그에게 납득할 만한 제안을 한다. (‘더욱 강인하고 튼튼하며 영원히 아무런 제약 없이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 때 거절 시 제안을 하는 사례는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버그로 추정된다. 결국 이 요청을 동의한 사용자는 그의 몸 주위에 있는 요소들을 끌어당겨 체구가 큰 괴생명체로 변했으며, 뇌 구조마저 변하면서 그의 자아를 상실하였고, 주위 인위적 물질에 매우 호전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례 이후 괴생명체가 세상에 보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고 절규하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다. 여기에서 나온 부정적인 반응들은 p-케어 AI에 더더욱 반영이 되었고, 버그를 정상 기능으로 오인하여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돌연 요청, 제안을 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괴생명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유일하게 ‘세상의 중심’ 안에 있던 부회장, p-케어를 사용하지 않는 반대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괴생명체로 변하였고, 그들의 각 모습은 다르나 최초로 보고된 괴생명체의 성격과 다를 바가 없었다.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괴생명체들에 의해 죽어 나갔고, 버그 픽스를 하려던 찰나에 이미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안 부회장은 그 곳에서 자신이 사태를 벌였다는 생각에 절규하고, 탈출을 하면 그들에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세상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고립하였다. 이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미치기 시작했고, 변한 이 세상을 ‘이상향’이라고 칭하였다.

괴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까운 주위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세상은 손쉽게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그들은 인간처럼 먹지 않아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공통된 사항이며 각 차이점이라면 체형의 차이였다. 총 한 발을 맞으면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거나, 몇 발을 맞춰도 영향이 잘 가지 않는 개체도 있었다. 그들도 치명상을 입으면 죽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불멸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6개월) 후,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삶의 의욕을 잃었으며, 죽는 날 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남아있는 식량 마저도 괴생명체에 의해 파괴되거나 부패되었고 AI를 사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남은 AI 사용자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거리를 활개치고 있을 뿐이였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개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한 주인공도 p-케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현존 무기들을 모두 다룰 줄 아는 만능 군인 출신이였지만 p-케어로 전쟁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져 국가에서 군인 절감 정책을 실행하여 실직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정책에 분노하여 p-케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가 발생하여 (6개월)동안 생존하였다. 허나 이렇게만 처참히 살 순 없겠다며 주위 괴생명체의 시선을 피하며 거주지에 가까이 있던 프로토 인더스트리 회사로 향했다.

회사 내부는 처참했다. 거의 모든 시설이 망가졌고, 불도 들어오지 않아 어디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였다. 다행히도 입구엔 경찰이나 보안팀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있었고, 장착하고 있었던 권총 한 정과 손전등을 주인공이 가져갔다.

폐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쪽에 건물 내부 구조도가 있어 확인을 해보았다. 1층부터 15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딱히 p-케어 공정 과정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들은 구조도에서 참고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층 마다의 섹션 또한 그런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 정보를 알아내려고 주위를 고개를 돌려 보는 찰나, 데스크 뒤쪽 벽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대수롭게 보지 않았었는데 훼손된 공간 너머로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 ‘세상의 중심’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문을 발견했다. 웬만해서는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인데 어째서인지 훼손이 되어서인지 반쯤 열려있었다.

주인공은 자신이 실직한 이유로 p-케어를 만든 프로토 인더스트리에 조사를 많이 한 상태였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p-케어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보니 아직 이 기업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다. 주인공도 의아해하면서 유심히 보려던 찰나에 프로토 인더스트리 입구에 괴생명체 몇 마리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급박한 상황 속 어차피 여기에 잔류해봐야 살 수 없겠다 생각한 주인공은 훼손된 공간 너머 ‘세상의 중심’ 입구로 향하고 문을 닫는다.

도대체 이런 통로는 구조도에도 없었는데 왜 있는지 의문이 든 주인공은 어두컴컴한 통로, 동굴 안으로 향한다. 물론 이 곳에도 외부에서 유입된 괴생명체가 여럿 존재했었다. 생존을 위해선 그들을 향해 총을 쏠 수 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압도적인 형체는 없었다. 그들을 처치 하다보니, 괴생명체의 훼손된 신체 부위 어딘가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들이 심어 놓은 AI 디바이스였다. 주인공은 이를 수집하고 밑으로 밑으로 향한다.

위 통로와 아래 통로 사이엔 나름 쉴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이 존재하였다. 그곳에서 무기를 두고 그동안 모은 디바이스들을 한 곳에 두고 휴식을 취하는데, 갖고 있던 무기에 푸른 빛이 돌며 갖고 있는 디바이스 개수를 토대로 선택지를 주며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기를 변형하는 데엔 재료가 필요할 텐데, 그 동안 모았던 디바이스들이 재료였던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나 유연하게 발전했구나. 라고 느낀 주인공은 그래도 미심쩍지만 무기를 변형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이 들던 찰나, 주인공은 ‘세상의 중심’ 직전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그 곳에 이르기엔 중간에 엄청 견고해보이는 문으로 보안하였으며, 샷건으로 쏴도 안 뚫릴 것 같은 문이였다. 하지만 그 동안 변형되었던 무기는, 이 문을 뚫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뚫고 나서 보이는 ‘세상의 중심’은 생각보다 광활하였으며, 원통 느낌의 공간에 중간의 큰 보호막에 씌인 듯한 기둥이 자리 잡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하는 듯한, 그런 도넛 모양의 공간이였다. 그리고 이 곳에 한 명이 자리잡고 있었으니, 프로토 부회장이였다.

(주인공과 부회장의 대화)

더 이상 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주인공은 부회장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러자 부회장 또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 것을 발휘하였다. 그는 유일한 p-케어 사용자 중 생존자였는데, 그에게도 제의가 들어왔으나 수락한 대신, 자아를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자신의 신체를 변형 시킬 수 있다는 점이였다. 그도 준비를 끝내자마자 주인공을 습격한다.(보스전)

격한 전투 끝에 부회장은 끝내 목숨을 잃었고, 주인공은 큰 기둥에 붙어있는 한 장치로 향한다. 그 장치는 관리자 권한으로 p-케어에게 명령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였다. 또한 이 들이 그 동안 불법적으로 모아왔던, 데이터베이스의 결정체이기도 하였다. 그는 p-케어가 모두 가동을 중지하고, 그 전에 모든 변형체들은 원래대로 복구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세상에 있었던 모든 괴생명체들은 끌어당겼던 물체들을 다시 복구하며 원래대로 돌아왔다. 주인공의 무기 또한 다시 권총으로 돌아왔으며, 기둥을 두른 보호막도 해제되었다. p-케어는 가동을 멈추어 변형시켜 파괴 흔적들을 복구하지 않았고, 또다시 괴생명체로 바꿀 우려가 있어 주인공은 이 사태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 가동을 중지한 기둥을 향해 총을 쏜다.

‘세상의 중심’에 위치한 기둥은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이며 지하에서 나오는 지열을 삼아 가동되었으며, 도넛 공간 내의 산소 분포, 온도 또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다. 하지만 주인공이 총을 쏘며 훼손이 되면서 이에 생긴 스파크가 기둥 전체 열기에 연쇄 반응을 주었다.

이내 ‘세상의 중심’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며, 주인공도 폭발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땅이 매우 흔들렸으며, 이 충격으로 프로토 인더스트리가 있었던 구역이 전부 땅 밑으로 꺼지면서 붕괴되었다. (이로 인해 근처 구역에 복구된 사람들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프로토 지부에서 죽은 사상자들,)사태 이후 이미 죽었거나 사람들의 변형 이후 파괴한 흔적들은 고칠 수 없었다. 그래서 복구가 되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처참하였다.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뿐더러, 훼손된 시설을 복구하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주인공에 의해 괴생명체가 지배한 세상은 일단락 되었으나, 이후의 세상은 돌아온 사람들의 몫일 뿐 이였다.